

제52회 한국음악교육학회 여름학술대회를 마치고

A Review of 2021 KMES Summer Conference

조 아 영*

Ahyoung Cho

한국음악교육학회는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5일 간 “뉴 노멀 시대의 음악 교육: 과제와 실천”을 주제로 제52회 여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여름학술대회는 전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쌍방향소통플랫폼(Zoom, Youtube)을 이용하여 음악교육학자와 전문가, 유·초·중등 현장교사 및 예비교사 등 약 200명이 참가하여 음악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내용과 현장적용 사례 등이 발표·논의 되었다. 이번 여름학술대회에서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흐름과 그에 따른 교육의 변화 속에서 음악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팬데믹(pandemic) 사태에 따른 원격 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식에 직면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음악교육 분야를 이끌어갈 교수자와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등에 관한 고민과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여느 때보다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김미숙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5일 간의 여름학술대회는 기조강연과 초청강연, 랜선워크숍(4개)과 우수수업사례발표(4개),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발표(20개), 신진학자 우수논문발표(3개), 그리고 거문고연주자 박다울과 앙상블 ‘바람’의 랜선음악회로 풍성하게 구성되었다. ‘What I Learned about Teaching from Covid-19’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맡은 Randall Everett Allsup(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교수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음악교육에 대하여 ‘포트폴리오, 테크놀로지, 웰빙과 대화’의 주제로 나누어 강연하였고, 온라인 교육이 미래의 음악교육의 발전을 가능하게 함을

* 성남금용고등학교 교사

피력하였다. 이어진 초청강연에서는 김석범 한국예술교육학회장이 ‘영화 스토리텔링의 비밀’을 주제로 영화교육 전반에 대하여 강연하였고, 영화와 음악교육과의 접점에 대한 활발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랜선워크숍과 우수수업사례발표에서는 비대면 수업 실시 상황에서 음악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재적 음악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활발히 공유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랜선워크숍을 통해서는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각 영역에 대한 음악교육방법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직접 움직이고 소리 내며 경험하는 참석자의 적극적 참여가 유도되었다. 랜선워크숍은 크게 비대면·원격 수업, 블렌디드 수업, 교수법 등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주제에 따른 연구 발표 제목은 다음과 같다.

- 비대면·원격 수업: 가상현실(VR)로 떠나는 나만의 음악시간: 이탈리아 칸초네, 뮤지컬 온!
- 블렌디드 수업: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음악 표현영역 수업
- 교수법: 오르프적 접근수업의 실제 (마리오네트는 살아있다)

우수수업사례발표를 통해서는 비대면 원격 수업 형태를 중심으로 초등과 중등의 학교급에 따른 다양한 수업 방법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수수업사례발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초등: 국악놀이터 앱을 활용한 초등국악수업, 블렌디드 수업 상황에서 음악 창작을 활용한 학급 경영
- 중등: 스마트 폰 앱을 활용한 음악수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실용음악 수업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20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구논문발표에서는 비대면·원격 수업, 블렌디드 수업, 교육철학, 교과서 및 교육과정, 교사역량 등 다채로운 연구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또한 각각의 연구발표에 대한 질의를 다양한 방식(Youtube 댓글, 실시간메세지, padlet게시판)으로 나눌 수 있도록 구성하여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각 주제에 따른 연구 발표 제목은 다음과 같다.

- 비대면·원격 수업: 온라인 합주 프로그램 싱크로 활용 원격 실기 수업 지도 방안, 비대면 수업환경에 대한 교원양성 대학 신입생 인식 조사, 밴드랩을 활용한 화음창 활동 운영, 온라인 피아노 레슨의 환경과 교수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조사연구

- 블렌디드 수업: 블렌디드 러닝에 기반한 개별화 클래스 피아노 수업(DIbBL) 운용방안 연구: 유·초등 예비교사를 중심으로, 음악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재구조화에 따른 블렌디드 교수학습방법, 블렌디드 기반 뮤지컬 영상 제작 수업 연구, 음악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재구조에 따른 블렌디드 감상수업 연구
- 교육철학: 감정을 구성하는 음악교육, 포스트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음악교육의 과제-기술과 예술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 교과서 및 교육과정: 뉴노멀시대 음악교과서의 변혁 가능한가?, 미국 맥그로힐(Mcgraw-Hill) 초등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중국, 일본 음악의 양상
- 교사역량: 예비초등교사의 악보 읽기 능력에 따른 시선 이동 분석, 음악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Pinar의 쿠레레 음악적 적용
- 기타: 비교문화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의 위치와 의미론에 관한 성찰: 다문화와 상호문화의 이분법을 넘어, 대학생의 음악과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음악적 조율의 의미,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대비한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방향, 음악의 Dimensions: 점·선·면, 음악아카이브를 통한 감상 학습 방안

올해는 특별히 신진학자 우수논문발표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차세대 젊은 음악교육학자를 발굴하고 그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수논문발표 제목으로는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 연구’, ‘비대면 음악 실기 온라인 원격레슨 실태 연구’, ‘융합교육의 관점에서 본 2015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가 발표되었다.

랜선음악회 또한 학술대회의 흥과 깊이를 더해주었다. 거문고연주자 박다울의 ‘거문장난감’, ‘Drug’ 곡의 연주에 이어 관악양상을 ‘바람’이 ‘The liberty bell’, ‘Amazing grace’, ‘Tuba boogie’, ‘투우사의 노래’, ‘Elbimbo’ 의 5곡을 연주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Covid-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많은 염려와 고민이 있었지만 발표자, 참가자들의 협조와 애정어린 관심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갑작스럽게 변화된 비대면, 대면, 혼합 교육 상황에서도 음악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다양한 과제와 실천 방법들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었던 이번 여름학술대회는 뉴노멀시대의 새로운 지적교류의 방향을 열어주었다. 무엇보다 비대면 방식임에도 참여자들이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올리고 발표자, 참석자들이 함께 의견을 제시하며 대면 학술대회 버금가는 토의가 이루어져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학술대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여름학술대회의 준비와 과정 전반을 총괄해주신 백재연 교수님, 준비과정과 학회기간 내내 애써주신 황지아 선생님, 이소영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